

# 미얀마 쌀 사업 가치사슬 향상 시작

### 품종부터 유통까지... 농진청, 포스코인터내셔널과 양해각서 체결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사장 주시보)과 미얀마 쌀 사업 가치사슬(품종-재배-가공-유통) 향상 사업을 시작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5일 포스코인터내셔널 서울사무소에서 체결했다.

이날 양해각서 체결식에는 김경규 농촌진흥청청장과 포스코인터내셔널 주시보 사장 등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농촌진흥청은 균일하고 품질이 높은 원료 벼 생산기술을 지원하고,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현지 원료 벼의 가공·유통을 담당하여 K-농업 민관협력을 구축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은 미얀마 현지에서 해외 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사업을 통해 2014년부터 벼 품종개발, 재배기술 개선 및 수확 후 관리기술 협력과제를 추진해 미얀마 현지 맞춤형 벼 생산관리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한국 품종과 미얀마 품종을 교배하여 벼 품종육성을 추진한 결과, 최근에는 미얀마 환경에 잘 적응하고 생산량이 많은 벼 품종 선발도 앞두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포스코인터내셔널과 미얀마 쌀 사업 가치사슬(품종-재배-가공-유통) 향상 사업을 시작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5일 포스코인터내셔널 서울사무소에서 체결했다. 이날 양해각서 체결식에는 김경규 농촌진흥청장(오른쪽)과 포스코인터내셔널 주시보 사장 등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지난 2017년 연산 1만5000 톤 규모의 미얀마 현지 미곡종합처리장(RPC)을 인수했고, 작년에는 '에아와디주' 곡창지대와 '양근' 수출항을 잇는 '똥데' 수로 변에 연산 8만6000 톤 규모의 RPC를 완공해 연산 총 10만 톤 규모의 도정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미얀마 RPC사업은 미얀마 내에서 확보된 양질의 원료곡을 가공해 중국, 아프리카, 유럽 등지에 판매함으로써 시장 점유율 제고 및 수익성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미얀마는 1960년대 세계 최대 쌀 수출국이었으나, 현재 단위면적당 벼 생산량이 3.8톤/ha로 인근의 베트남의 2/3 수준으로 낮다. 더불어 쌀 가공수율(도정수율)이 낮고, 품질의 균일도가 떨어져 국제시장에서는 미얀마 쌀이 저평가되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 주시보 사장은 "이번 민관협력은 벼 품질 향상을 통한 미얀마 농가 소득 증대 및 미얀마 쌀 산업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포스코그룹의 기업시민 경영이념을 적극 실천하고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업무협약의 의미를 강조했다.

김경규 농촌진흥청장은 "KOPIA 미얀마 센터와 포스코인터내셔널 미얀마 RPC 사업과의 협력이 벼 종자-재배-수확-유통-판매 등 생산부터 유통까지 미얀마 쌀 산업의 가치 향상을 위해 미얀마와 함께 협력하여 추진하는 우수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상기자

# "9억 이상 고가주택 매매 자금출처 의심거래 상시조사"

### 홍남기 부총리, 부동산시장 점검 회의서



정부가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 차단을 위해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의 매매의 경우 자금출처 의심거래를 상시 조사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 아래, 대응 강화를 위한 방안을 중점 논의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매매 자금출처 의심거래를 상시 조사하고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할 예정"이라며 "공급대책의 주요 개발 예정지 등은 상시 모니터링 후 과열 우려시 즉시 기획조사에

추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기관 간 공조를 통해 집값 담합, 부정청약, 탈루 등에 대한 조사·수사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변칙·불법거래 의심 사례는 예외 없이 전수조사해 끝까지 추적하고 엄중한 처벌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전남 서울권역을 중심으로 13만2000세대의 신규 주택공급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홍 부총리는 "주택공급이 아무리 늘어나더라도 불법거래, 다주택자들의 투기 등을 근절시키지 않는다면 부동산시장 안정 달성은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관계부처합동 부동산 거래조사에 따르면 1인 법인·외국인·갭투자자의 다주택 취득, 업·다운 계약서 작성, 무주택자 명의를 이용한 대리청약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뉴스



중소기업중앙회가 5일 중소벤처기업부, IBK기업은행과 공동으로 중소기업 우수인력 확보 및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자상한(자발적 상생협력) 기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중기 우수인력 확보 · 청년실업 해소

### 중기중앙회-중기벤처부-기업은행, '자상한 기업' 협약 체결 고용유지 · 일자리 창출 기업에 우대금리 대출 · 금융비용 지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5일 중소벤처기업부, IBK기업은행과 공동으로 중소기업 우수인력 확보 및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자상한(자발적 상생협력) 기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상생과 공존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 중인 '자상한 기업' 프로젝트에 IBK기업은행이 16번째로 참가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동참한 이번 협약은 '일자리'를 주제로 한 첫 번째 협약으로, 국책은행의 지원기능을 활용해 고용을 희망하지 만 재원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을 직접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중앙회와 IBK기업은행은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금리(최대 1.0%p 인하) 대출 지원대상을 '고용유지 기

업'으로 확대하고, 지원규모도 1,000억 원 증액한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이 신규채용 시 1인당 최대 100만원씩 총 600억원 규모로 금융비용을 지원하며, 청년 일경험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해 중소기업에게 필요인력을 제공하고 구직자가 12주 이상 현직습습 시 참여기업에게 1인당 50만원 상당의 금융비용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총 5,000만원 규모의 장학금을 조성해 중소기업에 취직한 취업준비생에게 학비의 모교에 수여하고, 연 8회 이상의 우수 중소기업 현장탐방 프로그램 추진을 비롯해,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중소기업 일자리 인식개선 박람회도 연 2회

이상 개최한다.

또한 올해 말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구축 예정인 '중소기업 일자리플랫폼(가칭)'과 IBK기업은행의 i-ONE JOB 간 긴밀한 연계를 통해 청년구직자들이 원하는 중소기업 일자리 관련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수집·공유하고, 이를 활용해 중소기업-구직자 간 매칭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최근 경영환경 악화로 고용유지마저 어려워하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중소기업 대출 부문에서 리딩뱅크(leading bank) 지위를 지켜주고 있는 기업은행의 지원은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중기중앙회는 기업은행과 중소기업 금융지원 및 일자리 인식개선 사업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우수인력 확보 및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다양한 지원 모델을 발굴하고 공동사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경진원, 사회적기업가 육성 '라이브스트리밍' 교육

전라북도경제통산진흥원(원장 조지훈, 이하 경진원)은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10기 창업팀을 대상으로 오는 10일부터 12월까지 마케팅 활용기법, 세무·재무, 상품개발 등 사회적기업의 성장을 위한 공동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경제의 변화 속에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기업 창업팀의 성장

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사회적기업 진입을 위한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경진원 유튜브 채널로 실시간 스트리밍 교육을 진행한다.

앞서 경진원은 지난달 라이브스트리밍을 통해 마케팅 기초 활용법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인파로 다양한 변화가 생겨나고 있는데,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창업팀과 함께 비대면 서비스 강화에 나섰다. 온라인 교육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콘텐츠 업데이트를 통해 더 많은 사회적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경진원 조지훈 원장은 "언택트 시대가 도래하면서 사회적기업을 비롯한 많은 창업기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며 "경진원은 온라인을 통한 다양한 교육과 지원프로그램을 확충하여,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 LH전북본부, 사업활용 비촉토지 매입... 14일까지

LH전북본부(본부장 권창호)는 중장기 사업 활용을 위해 비촉토지를 매입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신청기간은 14일까지로 전국 지역본부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매입 대상은 신청일 현재 개인이나 법인 명의의 1필지나 연결한 다수의 필지다. 토지 면적은 도시 지역이 1천㎡, 도시지역 외는 1천500㎡ 이상이며, 공공사업 활용에 적합한 토지를 대상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 따라 취득·이용·처분이 제한돼 개발이 곤란한 토지는 제외된다.

LH(사장 변창홍)는 비촉토지를 매입해 공공주택 건설과 도시재생 등 공공사업에 활용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중·소기업 위기 극복과 경기 활성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매입 가격은 LH에서 선정한 2인의 감정평가업자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에서 LH와 매각 신청인이 협의해 결정하며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평가비용은 LH가 부담한다.

신청절차 이후 토지 조사, 사업활용성, 입지 여건 등의 심사를 거쳐 매입 대상 토지를 선정하고 올해 하반기 안에 계약 체결과 대금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매입 신청은 LH 전북지역본부 보상관리부(9층, 230-6413, 6455)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 한국철도 전북본부 '3기 고객평가단' 발대식

한국철도 전북본부(본부장 김광모)는 5일 익산역회의실에서 고객중심의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3기 고객평가단 발대식을 가졌다.

한국철도 고객평가단은 지난 7월 8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했으며, 전북지역에서는 철도고객을 대표하여 활동할 13명의 시민이 평가단에 선정되었다.

고객평가단은 내년 6월 30일까지 11개월의 임기동안 온·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한국철도 서비스 개선 제안활동 및 고객합동 캠페인 등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한다.

특히 이번 고객평가단은 역·열차 서비스 모니터링, 서비스 개선사항 아이디어 제안 등을 수행하며 활동실적에 따라 소정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김광모 전북본부장은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해 고객평가단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더 나은 고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 도내 집중호우 피해기업에 총 500억원 규모 금융지원

### 전은,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받은 중소기업·개인사업자 등 대상 기존대출 만기 도래시 연장 가능 최고 1.0%까지 금리감면 혜택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은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및 당행 거래 기업의 긴급유동성 지원을 위해 총 5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최근 계속된 집중호우로 인해 재산·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특히 피해가 집중된 가운데 지역 거점을 행인 전북은행이 신속한 피해 극복을 위한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행정기관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이며, 최대 1억원 범위 내로 신규자금을 지원한다. 기존대출에 대해서도 만기 도래시 만기연장이 가능하고 최고 1.0%까지 금리감면 혜택이 주

어진다. 이에 앞서 전북은행은 지난 6월 국가 재난·재해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와 함께 긴급구호키트(담요, 의류, 부식품, 가스렌지, 주방·취사용품 등)를 사전 제작한 바 있으며, 이번 도내 피해주민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전북은행 임용택 은행장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에게 대출 지원, 금리 감면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집중호우 피해 복구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역 거점은행으로서 전북은행이 항상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대출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전북은행 영업점 및 고객센터(1588-4477)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전북농협은 5일 이번 장마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진안군 진안읍 연정리 수박 재배 농가를 찾아 재해복구 일손돕기를 실시했다.

# 전북농협, 집중호우 피해농가 복구지원

전북농협(본부장 박성일)은 5일 이번 장마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진안군 진안읍 연정리 수박 재배 농가를 찾아 재해복구 일손돕기를 실시했다.

지난주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전북에서 서는 불안에서 논·콩·벼, 진안에서 수박·인삼 등 14 시·군 315ha의 농작물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전북농협은 침수피해를 입은 농가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이번 복구지원 일손돕기를 진행했다.

이번 재해복구 지원활동에는 박성일

본부장을 비롯한 김성훈 진안군지부장, 허남규 진안농협 조합장 등 임직원 20여명이 참여해 침수된 곳의 수박을 폐기하고 수박줄기를 제거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박성일 본부장은 "반복되는 재해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해피해우려 및 취약지역 등에 대해 철저한 사전점검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농업인과 함께하는 농협이 될 수 있도록 피해 복구활동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